‘선거비리 백화점’ 서광주농협 이사 선거에 또 ‘검은 돈 봉투’

“수백만원 뿌렸다” 제보에 경찰 수사 착수 …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것” 소문 파다

수 차례의 금품 부정 선거로 ‘비리(非理)의 온상’이라는 오명(汚名)을 썼던 서광주농협에서 또다시 돈 선거 악몽이 터졌다. 2005년 이후 3번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금품 비리에 이사·대의원 선거 비리까지 터져 ‘선거 비리 백화점’ 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뒤 자정 노력을 벌였음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0일 광주 서광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출마자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광주농협은 오는 14일 10명의 이사 선출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현직 대의원 60명 중 21명이 후보자로 나서면서 ‘과열’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광주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같은 제보를 받아 “검·경 등 사법당국에 제보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직 이사가 차기 이사 선거에 재출마하면서 조합원에게 12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전달했다는 제보에 대해 해당 농협 선거관리위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서광주농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돈 봉투와 해당 조합원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돈을 받은 조합원이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은 아니지만 ‘관리’ 차원에서 건넸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며 또 다른 금품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장, 서광주농협 주변에서는 10명의 이사 선거에 24명이 입후보하는 등 과열된 점을 고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금품 제공 여부가 추가로 드러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불안감 섞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사 선거의 경우 조합장 선거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 관리 대상이 아닌데다,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과 후보자가 인맥과 지연 등으로 얽혀 있어 사실상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광주농협의 선거 비리는 지난 2005년 이후 끊이질 않았다.

3차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3명이 금품선거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지난 2010년에는 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출마자와 대의원 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09년에는 대의원 선거에서도 당선자 2명이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조합장·이사·대의원 선거에서 부정 비리가 드러나 ‘비리 백화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금융거래실명제 위반과 부당대출로 직원 5명이 정직 등의 제재를 받은 전력도 있는 형편이다.

서광주농협은 이 때문에 지난 2011년 현재 조합장 당선 뒤 분위기 쇄신과 부정비리 척결 등 자정 결의에 나섰음에도, 이번 이사 선거에서 또다시 구태가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농·수협 이사직은 무보수직이지만,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전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인데다 조합원의 자격 심사는 물론 가입과 탈퇴 승락, 사업승인과 예산집행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대의원 경력이 있는 조합원이면 너도 나도 선거에 뛰어드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장만채 교육감 운명은?

항소심 오늘 오후 선고 … 교육계 촉각

직위 상실형 땐 전남교육감선거 요동

11일 오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전남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기 전남 교육감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장 도교육감이 ‘직위 상실형’을 받을 것인지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장 교육감은 지난 5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강화석)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친구의 신용카드로 쓴 돈 60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돼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장 교육감에 대해 제기된 2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순천대 총장 재직 시 대학 측으로부터 공관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개인용도 등 사적으로 쓴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횡령 부분은 징역형이 아닌 만큼 벌금만 내면 되지만 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 대학 학생식당 운영자인 박모(여·55)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돈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판결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직위를 잃게 된다. 벌금형으로 인신형이 아니어서 그동안 교육감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심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4개월도 남지 않은 6·4 지방선거에 나서는데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 교육감 측 관계자는 “단순히 빌린 돈이었던 만큼 1심에서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실수였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농협 인사교류 반대”

농협 조합원들 시위

농협 조합원들이 인사 교류 반대 등을 주장하며 농협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광주지역농협 민주노동조합 조합원들 10여명은 10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지역 농협간 인사교류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에서 열리는 광주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의 ‘지역 농협 직원간 인사 교류’ 안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노조원들은 지역 농협간 인사 교류의 경우 다른 법인으로 운영되는 농협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뤄지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곳으로 이직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은데도 본인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14개 지역농협 중 서광주·남광주·광주농협 등에서 타 지역 농협으로 옮길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연봉이 줄어드는 실정인데도,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이들은 또 S 농협 등 일부 농협에서는 조합장 자녀를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인사 비리도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S농협측은 이와 관련, “채용하긴 했지만 정상적 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

AI 방역 소독 10일 나주시 노안면에 설치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초소를 통과하는 군용차량에 소독 약품이 살포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파업기간 위법 영장집행 손배 청구

호남지역 철도노조

호남지역 철도노조가 지난 파업기간 경찰이 위법한 영장집행을 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했다.

철도노조 호남지역본부는 10일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앞세워 지난해 철도파업 기간에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위법한 영장집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현장 지부장까지 유례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경찰 수사관들은 영장집행과정에서 일부 지부장과 가족들에게 심각한 공권력 남용과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위법한 영장집행의 사례로 ‘지부장과 가족들의 세세한 개인 신상을 숙박업소에 유포’, ‘영장 없이 무단으로 집안에 침입 후 집안 수색’ 등의 행위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수십년전 실종처리 된 북한 주민 상속권 첫 인정

법원, 탈북자 딸 승소 판결

6·25 전쟁 와중에 북한에 끌려간 주민이 남한에서 실종 처리돼 상속권을 잃은 지 수십년이 지났어도 상속 당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상속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북한 주민이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은 별도 규정이 없어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상속권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본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민법에는 상속권이 없어진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 회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 주민에게는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6·25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에 끌려가 36년 전 실종 처리된 이모(1933년생)씨의 탈북자 딸(45)이 “할아버지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 청구 소송에서 “선산 315분의 45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술마셨다고 찬 밥 주냐” 아내와 몸싸움 … 경찰서행

쌍나팔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에게 찬밥을 차려줬다는 이유로 아내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하다가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53)씨는 10일 새벽 4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A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이모(51)씨와 시비 끝에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경찰은 아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 부부를 입건했는데, 정씨는 경찰에서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전날 찬밥을 저녁으로 챙겨준 게 생각나 순가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진술.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신축원룸매매(전대1분)

★전대상대2분상가원룸(용봉지구코너)★
신축 4층 룸 21개(1층 상가 2칸, 룸 18개 4층 주택)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엘레비이터 완비, 최고위치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융 3억, 보 1억)

★전대정문후문1분상가원룸★
신축 4층 룸 12개(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익 420만 매가 6억7천 (보 5천, 융 1억 2천)

★화정동5층상가원룸(신동아아파트정문)★
룸 27개, 1층 상가 80평(1층상가, 2층룸 9개, 3층룸 9개, 4층룸 9개)
월수익 1400만(1년 1억7천 수익) 매가 21억(보2억, 융 7억)

★수완지구상가(수익형,확실보장)★
매매
1층상가(17.5평) 대방5차 A후문 매가 3억 5천(보2천, 월130만, 융 2억)
3층상가(85평) 모아엘가 A후문 매가 3억 5천(보3천, 월200만, 융 2억5천)
3층상가(62평) 롯데마트 전면도로 매가 2억 8천(보3천, 월150만, 융 1억5천)
임대
1층(18평) 대방5차 A후문(보2천, 월110만)
3층(45평) 모아엘가 A후문(보2천, 월110만)
3층(62평) 롯데마트 전면도로(보3천, 월150만, 분할가)

★빌라형원룸매매(쌍촌동운천역2분)★
3천소액투자노후보장(연금처럼수익발생)
·원룸형매매 3800만 주택 11평 (보 200만, 월 30만, 융 1,000만)
·원룸형매매 4000만 주택 12평 (보 200만, 월 32만, 융 1,000만)
·투룸형매매 4800만 주택 14평 (보 300만, 월 40만, 융 1,500만)
·원투룸 임대 즉시입주가 풀옵션 (원룸 보 200만, 월30만/투룸 보300만, 월 40만)

신한공인중개사
☎062)521-1060, 010-6677-0144

여수 상업지 토지매매
여수시 중앙동 상업지 코너
기업은행뒷
(옛 재중병원자리)
중심상업 쇼핑거리
154평
(매가 8억2천)
최고위치
신축 5층 이상 가능
(건폐율 90%, 용적률 800%이상)
옷메이커, 커피숍, 편의점 신축 가능
(주)대화이앤씨
010-6670-9800
010-6677-0144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급매 광주은행 본점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 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급매, 지하철 쌍촌역 사거리 대로변 준주거 377㎡(111평)병원·사옥·학원·자동차 정비시설 등 적합 7억6천
◦ 쌍촌동 2종 주거지 674㎡(204) 다가구, 다세대 적합 매입가에 매도 3억1500만원 투자에도 적합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선 수익 9억6천
◦ 식당건물 급매 금남로3가 부근 소방도로 접 대지 149평 건평 438평 은행 6억4천 전세 8천에 월 440선 법인이전 7억6천
◦ 신축 쓰리룸 건물 북구 우산동 대지 516㎡ 12세대 8억9천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5천만원
◦ 모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지1677㎡(507)건평 422평 객실 48실 대출6억2천 매도 8억3천
◦ 사찰적합 건물 함평군 월야면 땅 2657㎡(804)건물 2동 57평 은행 2억 기도원 할수 있는 산이 있는 주택과 교환가능 5억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5)4층 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2천
◦ 북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평)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선 월900만원 매도9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신축식당 대지 3537㎡(1070)건물 148평 은행 3억 임대는 5천에 3백 원룸부지와 교환가능 5억8천
◦ 북동 상업지 992㎡(300)오피스텔, 생활주택 등 다용도 8억
매도·임대
◦ 쌍촌동에 신축중인 가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희망공인중개사
고객님의성공을희망합니다
상가/건물
▶ 상무지구 신축건물 매 75억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구분점포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명프렌차이즈 입점)
▶계림동사우나건물-일부층 원룸 매 17.5억(보8천,월8백,융9.5억 포함,직영수입 월천만)
▶월계동LC타워 2층상가 960㎡ 매 19억, 분할가(대형병원, 학원, 외식프렌차이즈 적합)
▶서구 아파트상가 1,800㎡ 매 10억(보 1.1억, 월610만, 융5.9억포함)
▶ 신창동 상가건물 매매 27억, 매매 15억
대지/전답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750㎡ 매매 26억
▶서구 마륵동 생산녹지 답 5,400㎡ 매매 21억
▶북구 용두동 대지 2,050㎡ 매매 6.9억
▶북구 문흥동 교도소부근 잡종지 6,300㎡ 매매 50억
▶북구 신안동 대지 3,100㎡ 매매 36억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지역 전 29,800㎡ 39억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전 17,000㎡ 매매 5.2억
기 타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융 5억)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상담, 접수 환영합니다
서구 치평동 라인동산아파트 102동 앞 상가 109호
☎ 010-5536-0382 062) 373-0382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급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 지 3,305㎡
건 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하동 자연녹지(2,100㎡)
일반 공업지역(2,400㎡)
허가필, 매매가격18억원
쌍촌동 대로접
대지(1,100㎡)건물(300㎡)
매매가격 17억원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